

☎140-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http://www.kma.org]/전화(02)6350-6572/전송(02)790-8911  
보험국장 김기성(6574) / 보험정책팀장 손용석(6571) / 과장 문지환(6572)/ E-mail: ace@kma.org

문서번호 대의협 제821 - 1507호

시행일자 2017. 5. 31.

수 신 16개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참 조

제 목 민간보험사(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면담 요청 관련 안내문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의료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방문(면담)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3. 동 안내문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이에 편승한 일부 피보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의료보험 손해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 소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과 실손의료보험 시장의 붕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중국에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 현재의 실손의료보험은 초기 시장 확보를 위해 보험사간 경쟁구도로 인해 무분별한 상품 설계 및 판매,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해 부실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5. 하지만 민간보험사는 실손보험 부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자구 노력 없이 지속적인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 민간보험 시장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있습니다.

6.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 관련 의료기관 방문(면담)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응할 이유가 없음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귀 회 소속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